숙적 꺾고 1500m 金…'스피드스케이팅 전설' 이레인 뷔스트

"은메달은 집에 많아 금메달 만을 꿈꿨다"



이레인 뷔스트(네덜란드)가 12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500m에서 역주하고 있다. 통산 10번째 올림픽 메달(금5·은4·동1)을 목에 건 뷔스트는 올림픽 역사상 스피드스케이팅 최다메달 수상자로 등극했다. 작은 사진은 우승이 확정된 직후 기뻐하고 있는 뷔스트(오른쪽)의 모습.
강릉 | 신화 뉴시스

스피드스케이팅 통산 최다메달 수상 기록
"정확히 12년 전 오늘 첫 금메달…더 감격"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한결같은 목표는 입상이다. 시상대에 오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4년을 준비한다. 색깔 구분 없이 단 하나의 메달만 따도 가문의 영광이다. 그런데 그런 메달을 무려 10개나 목에 걸었다면 어떤 기분일까.

네덜란드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의 대표주자 이레인 뷔스트(32)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평창올림픽을 통해 스피드스케이팅 통산 최다메달 수상자(10개)로 기록되며 전설의 반열에 올랐다.

뷔스트는 12일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500m에서 1분54초35로 일본의 다카기 미호(1분54초55)를 0.2초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8년 만에 1500m 정상 복귀이자 자신의 올림픽 10번째 메달을 금메달로 장식했다. 메달 10개(금 5개, 은 4개, 동1개)는 스피드스케이팅 사상 최다 메달이다.

아울러 개인 통산 4개 대회 연속 금메달 수확이고, 네덜란드 선수로는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금메달 5개와 총 10개의 메달을 따냈다. 통산 동계올림픽 최다 메달은 바이애슬론의 올레 아이나르 비에른달렌(노르웨이)의 13개(금 8개, 은 4개, 동 1개)이다.

뷔스트의 거침없는 메달 수확은 20세이던 2006년 토리노에서 시작됐다. 3000m에 출전해 우승했다. 이는 네덜란드 동계종목 최연소 금메달이었다. 1500m에서는 3위였다. 2010년 밴쿠버에선 1500m에서 정상에 오르며 네덜란드 스피드스케이팅 중장거리의 대표선수로 자리매김했다. 2014년 소치에선 무려 5개의 메달(금 2개, 은 3개)을 따내며 절정의 기량을 과시했다. 3000m와 팀추월에서 금메달, 1000m·1500m·5000m에서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런 엄청난 수확에도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더 많은 메달을 꿈꿨다. 평창을 목표로 다시 스케이트화 끈을 졸라맸다.

평창대회에서 출발은 아쉬움이었다. 10일 열린 여자 3000m에서 동료인 카를레인 하르데레이크터에게 겨우 0.08초차 뒤지며 2위에 머물렀다. 그는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바퀴에서 힘에 부쳐 성적이 부진하게 나왔다. 난 집에 은메달이 많이 있다. 그래서 금메달을 꼭 따고 싶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이틀 뒤에 열리는 1500m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젖 먹던 힘까지 짜내며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 특히 이번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시리즈 1500m에서 단 한번도 이기지 못했던 다카기 미호를 가장 중요한 순간에 뛰어 넘은 건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다카기는 이번 시즌 4차례 월드컵에서 모두 정상에 오른 강력한 우승 후보였다.

뷔스트는 "정확히 12년 전인 오늘(2월12일)이 토리노에서 내 생애 첫 금메달을 딴 날이다. 나는 그동안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매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게 내 목표였다. 마침내 오늘 그 목표를 이뤘다"며 감격스러워했다.

한편 뷔스트는 1000m와 팀추월에서 또 하나의 메달 도전에 나선다. 11번째와 12번째의 메달 수확이 평창에서 이뤄질 수 있을까.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눈을 부르는 마스코트 '슈니맨'…행운의 상징으로

〈1976년 인스부르크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의 모든 것

1968년 대회서 동·하계 통틀어 첫 등장
눈사람·동물·역사적 인물 등 각양각색

북한 여자선수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입촌식 때 화제가 된 장면이 있다. 다소 긴장한 표정의 북한 선수들이 대회 마스코트 수호랑을 보자 먼저 다가가 털을 만져보며 신기해했다. 신나게 함께 강강술래도 했다. 이처럼 마스코트는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게 하고 마음의 문도 쉽게 연다.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는 우리의 전래설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무섭지만 친숙한 호랑이다. 이름은 수호랑이다. 도전정신과 열정이 가득한 마스코트다. 관중을 보호한다는 뜻의 수호와 강원도 정선아리랑을 상징하는 랑의 복합어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의 마스코트였던 호돌이와 30년 나이 차가 나는 수호랑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2016년 6월 세상에 태어났다. 올림픽과 마스코트의 인연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올림픽에 마스코트가 처음 등장한 대회는

1968년 프랑스 그르노블대회 때 동·하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마스코트가 등장했다. 슈스라는 이름의 마스코트는 스키를 타는 붉은 얼굴의 나무 인형 모습이다. 머리에는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이 새겨져 있다.

동계올림픽에 마스코트가 다시 등장한 것은 8년 뒤 1976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대회였다. 당초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환경파괴와 재정부담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개최권을 반납했다. 개최 3년을 남겨놓고 새 장소를 찾던 IOC는 1964년 대회를 유치했던 인스부르크를 대타로 결정했다. 인스부르크는 마스코트로 슈니맨을 등장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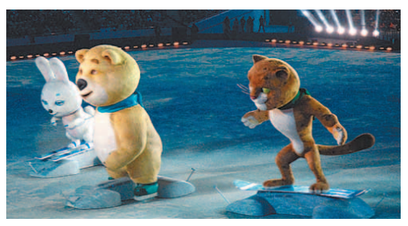
인스부르크 지방 사람들이 많이 쓰는 붉은 모자를 쓰고 코가 당근 모양인 슈니맨은 독일어로 눈사람을 뜻한다. 대회를 앞두고 눈이 부족해 군인들이 다른 곳에서 눈을 가져와야 했던 인스부르크는 마스코트 덕분인 듯 눈이 자주 내려 걱정을 덜었다. 이후 슈니맨은 행운의 상징이 됐다.

●너구리 늑대 북극곰 도깨비 등 다양

1980년 미국 레이크플래시드대회의 마스코트는 로니. 처음으로 동물이 등장했다. 레이크플래시드 어린아이들이 결정했다. 아메리카 너구리(라쿤)를 형상화 했다. 원래 플레시드 호에는 로키라는 이름의 살아 있는 라쿤이 마스코트 취급을 받았는데 대회 개최 전에 죽고 말았다. 그래서 올림픽 때는 로니로 이름을 바꿔 등장시켰다. 캐피탈 스포츠사의 디자인 작품이다.

사상 처음 동물을 마스코트로 등장시킨 전통은 1984년 유고 사라예보대회 때도 이어졌다. 늑대 부치코였다. 다나르 알프스 지방에서 흔하던 늑대는 용감하고 끈질긴데다 무서운 모습이었지만 귀엽게 만들었다. 부치코는 공모전을 통해 탄생했다. 836명의 참가자들 가운데 선택받았다.

1988년 캐나다 캘거리대회의 마스코트는 쌍둥이 북극곰 하이디와 하우디다. 귀여운 곰이 카우보이 스타일의 옷차림에 캐나다 국기를 들었다. 캘거리 동물원에서 7000여 시민들의 투표로 결정됐다. 원래는 갈색 곰을 생각했으나 1980년 모스크바 하계올림픽에서 갈색 곰이 마스코트로 등장하자 북극곰을 선택했다.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마스코트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대회는 별과 정육각형 모양 안에 들어간 작은 도깨비 마지크가 마스코트다. 붉은색 모자를 쓴 도깨비다. 별 모양은 꿈과 상상력을 상징하고 전체 컬러는 프랑스 국기의 청,백,적색을 연상시키게 했다.

●눈과 얼음덩어리도 마스코트가 된다

1994년 스웬덴 릴레함메르대회의 마스코트는 처음으로 역사속의 인물이 등장했다. 하콘과 크리스틴으로 13세기 릴레함메르 지역의 왕조에서 실제 살았던 인물이다. 귀여운 남녀 어린아이의 옷은 중세의 복장이지만 젊은이들의 비전과 흥미를 표현했다. 1998년 나가노대회 마스코트는 부엉이 4마리다. 일본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지혜를 상징하는 부엉이를 화가 마쓰시다가 디자인했다. 부엉이 이름은 각각 수키 노키 레키 추키다. 불 공기 지구 물을 상징하는데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4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뜻도 있다.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대회의 마스코트는 산토끼와 코요테 흑곰이다. 각각 파우더, 콜, 코퍼로 불린 마스코트는 유타 주의 눈과 땅을 암시한다. 산토끼의 스피드와 코요테의 힘, 흑곰의 산을 타는 능력은 올림픽의 모토(빠름 높음 힘)를 상징한다. 고대 유타 지역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탓에 각각 석화에 그려진 동물모양의 목걸이를 했다.

2006년 이탈리아 토리노대회의 마스코트는 네베와 글리츠였다. 눈덩이와 얼음덩이를 상징했다. 포르투갈 디자이너 페드로 알부케르케의 작품이다. 경연 대회에 출품된 작품 237개 가운데 결정됐다. 빨간색 옷을 입은 둥근모양의 네베와 파란색 옷의 사격형 글리츠는 조화와 움직임의 우아함을 상징한다.

2010년 캐나다 밴쿠버대회의 마스코트는 동물과 동화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콰치는 사크콰치라는 숲에 사는 짐승으로 전설 속의 유명한 캐릭터다. 미가는 육식고래, 케모데는 신화속의 물개다. 2014년 러시아 소치대회의 마스코트는 토끼와 북극곰 표범이다. 러시아 전역에서 출품된 2만4048개의 작품 가운데 12개를 먼저 뽑은 뒤 시청자들의 결선투표에서 1~3위를 차지한 표범(28%) 북극곰(18%) 토끼(16%)를 각각 선정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티켓 매진? '팬 투 팬' 있잖아!

공식 입장권 사이트 티켓 양도 서비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향한 관심이 점차 뜨거워진다. 개막식을 기점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입장권 판매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인기종목들은 일찌감치 티켓이 매진됐다. 남자 아이스하키와 남녀 피겨(아이스댄싱 포함), 우리가 특히 강세를 떨쳐온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은 물론, 알파인스키 여자활강~스노보드~프리스타일 스키 등이 대표적이다.

입장권 가격은 인기도와 정비례한다. 4등급(A~D)으로 분류하는 대회 개·폐막식 이외에 나머지 대부분이 2등급(A~B)으로 구분하는데, 피겨·아이스하키·쇼트트랙 및 스피드스케이팅은 3등급(A~C)으로 가격대를 세분화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 책정된 건 아이스하키 남자 결승이다. 무려 90만원이다. 예선전 기준 15만원이면 A석을 구할 수 있지만 8강(35만원)~4강(50만원)으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크게 뛴다. 지구촌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겨 스케이팅 갈라 쇼(80만원)도, 한국의 금빛물결이 예상되는 쇼트트랙·스피드 스케이팅 결승(55만원)도 아이스하키의 높은 가격을 뒤집을 수 없다.

이보다 높은 금액이 책정된 부문은 개회식(150만원)과 폐회식(95만원·이상 A등급 기준)뿐이다. 그럼에도 표가 없어 난리다.

하지만 매진됐다고 해도 낙담하거나 티켓구입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아직도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다. 평창올림픽 공식 입장권 사이트(https://tickets.pyeongchang2018.com)에 회원가입을 하면 '팬 투 팬(Fan To Fan)' 상에서 다른 이들이 구입한 티켓을 확보할 수 있다.

암표가 아니다. 대회조직위원회가 책정한 금액에 맞춰 양도가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과한 지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1일부터 입장권 취소가 금지된 가운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경기장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수시로 티켓 현황을 체크하다보면 운 좋게 인기경기 티켓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래도 다른 종목들은 비교적 수월하게 티켓을 살 수 있다. 대부분 지정좌석제인 A등급만 티켓이 남아있는 종목도 있지만 B등급 이하도 일부 판매 중이다. 단, 경기일자를 잘 살펴야 한다. 대회기간 중 설 연휴(15~18일)에 펼쳐지는 종목들은 빙상이든 설상이든 대부분 판매됐다. 나름의 명절특수가 동계올림픽도 적용된 셈이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많이 낯설었던 컬링 종목도 만원관중이 예고됐다. 또 이동이 불편한 오전보다는 오후 경기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